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23호 [루체 제 25732호] 주체 106(2017)년 8월 1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산총대로 날강도무리의 전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주체조선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달성하려는 구약무도한 유엔(제재결의)을 조작해내고 무엄하게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어찌보려는 추악한 흉계를 로물적으로 드러내며 히스패닉적인 전쟁광기를 부러대는 미제에 대한 천만장병들의 치솟는 중요와 분노가 하늘에 닿고있다.

조국의 하늘, 땅, 바다조소뿐 굳건히 지켜온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무적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군사적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원수적의지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집회장인 조국혁명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뭉쳐있는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의 투쟁정신으로 미제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쳐갈 참가자들의 혁명적기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백두산총대의 무적막강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내대와 세계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전군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단의 결연전일태세를 더욱 철저히 갖추자!》 등의 구호판들이 집회장에 세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들은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는 《백두산총대는 대담하리라》노래 주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낭독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제재결의)를 흔들릴 단죄규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걸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백두산총대로 날강도 미제의 사상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말 밀적의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암살할 흉계미에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걸어온 미제와 결판을 내고야말 단호한 힘장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박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만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지버리고 미국의 폭주각시, 하수인으로 전락된 유엔이 조작해내는 불법부법의 그 무슨 《결의》같은것들을 인정한적이 없으며 전면배격하였다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유엔군》의 람을 쓰고 신성한 이 땅에 기여들어 삼천리강토를 세터미로 만든 미제는 전후 민세기이상이나 유엔의 저수기를 동원하여 온갖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을 일삼으면서 우리 인민에게 해야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불렀다.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 미제는 사회주의 조선의 승리적진군을 가로막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밑에 그 무슨 《제재결의》라는것을 끊임없이 조작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이 악명높은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침략전쟁도발책동에 피어는 되어 미쳐날뛰었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침략자 미제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지난 7월에 편이 행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무모한 군사적모험과 비열한 제재책동을 벌리고있는 대양 건너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그 무슨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그를 무실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또다시 무비명으로써 우리의 자주권을 생존권, 존엄을 해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았다.

연설자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모진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위피를 조이며 위대한 당의 명진로선을 결사로 받들고 무적막강한 국력을 역력같이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화되었는가를 다시금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눈물이 우리의 저를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제재압박운동에 매여달리고있는 이상 인민군대는 이미 천명하듯 무적의 총대로 날강도 미제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하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이 세상 천민대적이 통제로 떨쳐버려도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칙같은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고 천리방선소수마에 역년 드는지 않는 수명결사용위의 성세, 무적방면력을 향유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하나의 작전과 전투를 조직하고 헌원의 훈련을 진행해도 모든 공성과 계기들을 철두철미 수명사수전, 수명보위전으로 일관시키며 우리의 눈부신 태양을 가리우고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원인공노해 모략책동을 걸음마다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진로선을 총적하게 받들는데 백전백승의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유일적명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켜 인민군대를 어떠한 변경과 시련속에서도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충구를 내두고 분바르 나아가는 무적철승의 혁명강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해나감에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장병들이 정치사상강화, 도덕강화를 향기들로 들어하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의 일일속에서 머리끝까지 발군까지 우리 당의 사상이 짙들어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 혁명적도덕의 리의 최강자들로 역세에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의 전투훈련을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격전과 같이 여기고 당이 제시

한 훈련혁명 5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본토의 준비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언제나 고도의 각동상에서 적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단단의 전투훈련준비를 갖추으로써 일단 명명만 내리면 미제와 피의적제당을 저도 없이 쓸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이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기 위하여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미쳐날뛰는 원수들의 정수리에 준엄한 철수를 내리는 심정으로 사투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진총동결의의 맹 앞장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제2, 제3의 려멸거리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백승을 이룩하는 강용한 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싸움준비를 민중없이 완성하며 전군을 미제와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세압박과 도발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최후경사전으로 힘있게 조직투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치우지 않고 경제망탕한다면 천하무적의 우리 혁명무력은 아무침일 눈, 비명지를 높도 없게 가장 치열하고 무자비한 정벌을 안고 고야말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의 악랄한 제재와 암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려사적대업,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총폭격, 총대진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육군상장 윤동현은 유엔안보리사회의 만공화국(제재결의)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걸친 모든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조선인민의 절원지원우 미제와 함께버린 미국억력을, 너털한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고있다고 말하였다.

한 훈련혁명 5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본토의 준비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언제나 고도의 각동상에서 적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단단의 전투훈련준비를 갖추으로써 일단 명명만 내리면 미제와 피의적제당을 저도 없이 쓸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이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기 위하여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미쳐날뛰는 원수들의 정수리에 준엄한 철수를 내리는 심정으로 사투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진총동결의의 맹 앞장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제2, 제3의 려멸거리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백승을 이룩하는 강용한 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싸움준비를 민중없이 완성하며 전군을 미제와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세압박과 도발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최후경사전으로 힘있게 조직투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치우지 않고 경제망탕한다면 천하무적의 우리 혁명무력은 아무침일 눈, 비명지를 높도 없게 가장 치열하고 무자비한 정벌을 안고 고야말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의 악랄한 제재와 암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려사적대업,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총폭격, 총대진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육군상장 윤동현은 유엔안보리사회의 만공화국(제재결의)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걸친 모든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조선인민의 절원지원우 미제와 함께버린 미국억력을, 너털한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장병들이 정치사상강화, 도덕강화를 향기들로 들어하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의 일일속에서 머리끝까지 발군까지 우리 당의 사상이 짙들어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 혁명적도덕의 리의 최강자들로 역세에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의 전투훈련을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격전과 같이 여기고 당이 제시

한 훈련혁명 5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본토의 준비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2 면으로 계속

백두산총대로 날강도무리의 전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1 면 에서 계속

그는 오늘의 준엄한 사태를 통하여 원만장병들이 다시한번 심장에 쏘이박게 되는 것은 승냥이의 본성은 죽어넘어질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오직 총데로만 지킬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조국통일대전, 반미최후집사전은 수명사수전이라는 투철한 판결과 필장을 가지고 모든 작전과 전투를 수명결사용위전으로 일관시키며 인민군장병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환복술 바쳐 보위하는 천검단검의 성세가 되고 방한벽이 되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

사상을 깊이 세득하고 적들의 이온바 《에방전쟁》, 《선제타격》기도를 우리 식의 정의의 전면전쟁,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기 위한 기보하고 명확한 전술과 전루방안들을 적극 연구도 입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부대를 이끌고 최고사령부의 작전도에 그어진 붉은 화살표따라 노도와 같이 전격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이 눈앞에 박두한 험악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능력이 감히 우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고 제도붕괴를 노리는 《비밀적전》을 벌려놓으려 한다면 수백만 로동적위군, 붉은 청년군위대원들을 포함한 전민항전으로 짓몽개버릴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내변인성명을 통하여 천명한 모든 군사적조치들이 결코 민방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줄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만약 적들이 이 땅에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천금같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과 반미대결전의 승전포성을 장제하게 울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목군대의 리장장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제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군의 정치일군들과 군인들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그는 하늘, 땅, 바다초소의 군인들과

분분초조 만전을 기하고 슬통대기상대에 있는 영유한 특수작전군집단의 육탄용사들은 적들에 대한 치솟는 중요심으로 만장약편 복수의 용단을 악용심에 밀어넣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조준경안에 완전히 걸어넣은 상태에서 당의 최후공격만을 기다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정치일군들이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조국일에 닦쳐온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인들이 천주격멸의 의지와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반제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펼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당정치사령을 공세적으로 파급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서 계시면 그 어떤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참수작전》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기 위한 수명용위성전에 천만장병모두를 총렬기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투진지와 훈련장들에 파지를 정하고 군인들속에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조국전사수호정신과 투철한 주적관을 심어주기 위한 최선정치사령을 전폭적으로 벌릴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모든 군인들이 전화의 리수복, 조군심이 되어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 용대로 백두의 대엄을 기어이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경사용위하는 천검단검의 성세, 방제가 되어 조선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억척같이 지키며 당중앙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갈 김정은혁명장군, 혁명적당군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담은 구호들을 우렁차게 외쳤다.

집회는 《수명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총정도로 받들어 백두산총대로 천년속적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제책동과 무분별한 전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의 필적의 기상과 불려의 위엄을 힘있게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붉은 칼로 미제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 진행

주제의 력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을 겁을 먹고 사상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떼어달라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천배의 보복의지가 온 나라 강산을 용암마냥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집회장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막살하려는 흉악한 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은 미제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쳐갈기고 계급의 붉은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서슬추르르 제 버비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인민보안성들과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의 혁명적의지로 세지게 박박치고있었다.

《위대한 집결운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을 단죄규탄, 전면타격하자!》, 《선군의 위력으로 만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의 구호관들과 선전화물이 집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집회에는 인민보안성 최부일동지와 강철훈 조선인민내무군정치국장, 인민보안성, 평양시안의 인민보안기관 일군들, 보안원들, 내무군관인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인민이 총력투쟁하라》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최부일동지가 낭독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내무군장장 협동원은 전체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의 이름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앞에 저지른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배로 갚아줄것을 엄숙히 선포한 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공하였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고 주재없는 비열한 불이 겨우기가 되어 이번 《제재결의》를 꾸미는것은 주제의 력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유혹 올리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걸림한자들의 단말미적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수차례에 걸치는 제재도 압력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주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고 자강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방식

에 사로잡혀 극단의 군사적보복과 제재압박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그로부터 얻을것은 수치스러운 패배와 최후멸망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초보적인 정의도 배의마져도 다 켜버리고 미국의 폭주각시가 되어 맹종맹종한 주변나라들도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본적이 없고 그 어떤 압력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만 뜻이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림수 없으며 우리는 지역시장의 불변침로에서 100도 예뻐지 않고 끝까지 끝바로 물진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능력이 준수없이 선봉일한다면 전민총결사전을 벌여 적들에게 심멸적인 타격을 안기고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려야하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보안기관 일군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사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설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갈피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을 계획하고있는 미제의 엄중한 도발에 대처하여 모든 인민내무군장병들이 한집단집의 성세가 되고 억년 드높지 않는 방한벽이 되어 당중앙위원회와 주제의 최고상지 금수산태양궁전을 겹사보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총지의 백전백승의 평도리와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사적 싸워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내무군장장 윤계수는 미국과 그에 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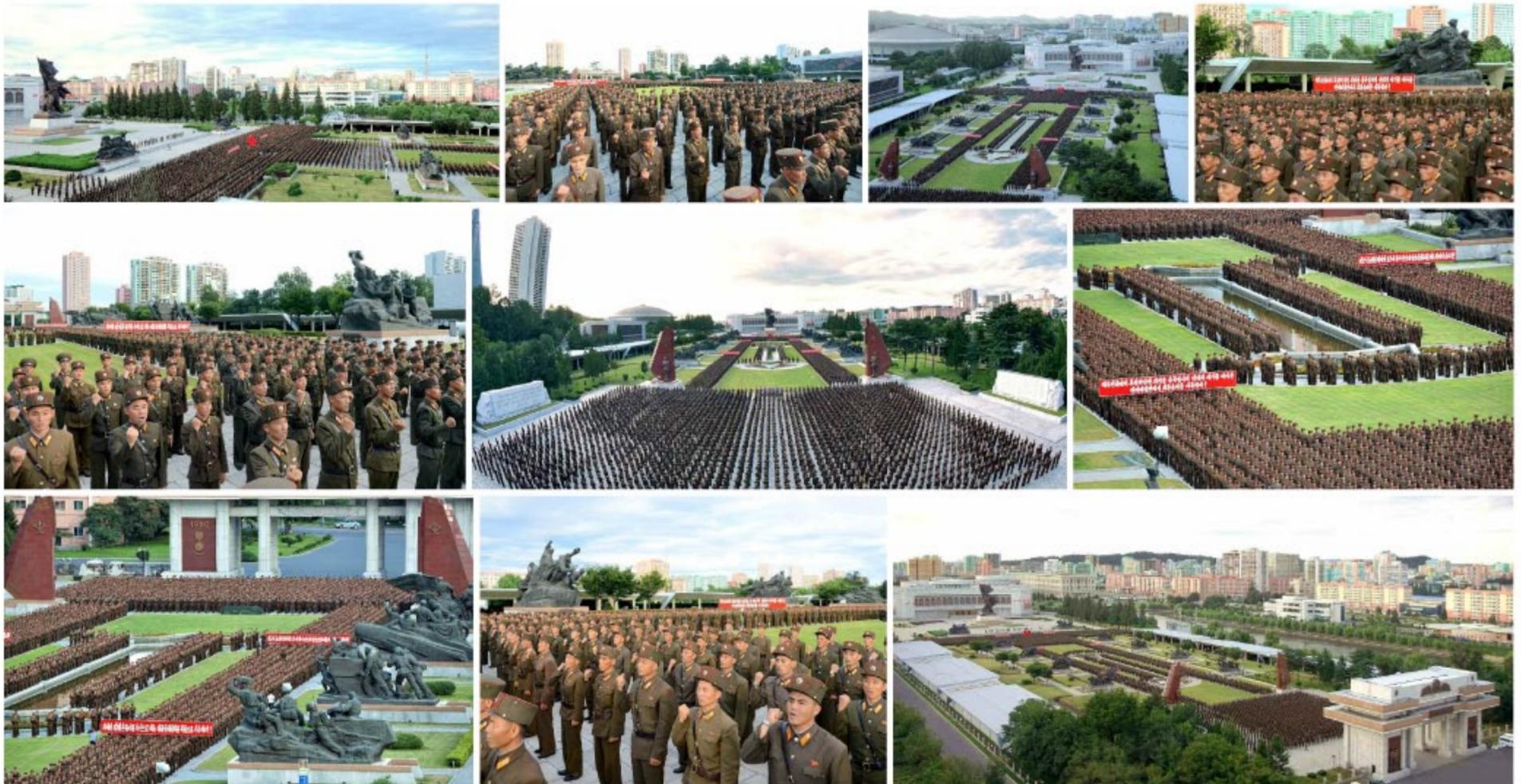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총지를 천금만금의 성세, 땅에가 되어 겹사옹위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민약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거침없는 정교에도 불구하고 감히 선봉집을 한다면 우리는 원수적멸의 총결사전에 떨쳐나 무지비한 쉼없이 가장 비참한 종국적 파멸을 안길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명진로선 따라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

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특목히 보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4 면 으 로 계 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붉은 칼로 미제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 진행



3 면 에서 계속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성이 어려 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온갖을 바쳐 지켜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을 압살하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축탕처벌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의 내무군, 무지미한 타격대로서의 사령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내무군군관 리창철은 우리 국가력투력의

질량적강화에 힘을 먹은 미국이 유엔안전 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전대미분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해냄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용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우리에게 쌀 한알, 기름 한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게 악랄하게 핵동한 미국이 오늘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저 장그리 말살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고 하면서 미제야말로 인류집을 쓴 아수의 무비, 불구대천의 원수이라고 말하였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남강도는 오직 봉봉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자기와 맞선 나라가 어떤 상대인가를 똑바로 알고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만약 미제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인민내무군 군인들은 전인민적인 총결사전에 파감히 떨쳐나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쌓이고 쌓인 천만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우리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본다면 무

장하고 원수들을 써도 없이 짓밟개버리기 위한 싸움준비를 완성하며 중요대상건설에서 현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진전의 불길용 세차게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신다면 전체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한몸이 그대로 총독만이 되고 핵탄두가 되어 가중스러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낼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총칭으로 받들고 사회주의의 마지막경승선을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옹위하는 무죄방패, 붉은 명수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급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집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